

★ ISTANBUL



나폴리 전역 발발 239회 연회가 정우는 카페 4호에서 10월 15일에는 그 빌딩에서 총회 할 수 있는 빌딩이다



널고 날것들의 동네

“그 이름, 전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니까요, 우린 겁쟁이 아니라고요.” 호텔 테라스에서 풀 널고 시리얼을 우물거리며 가이드가 말했다. 유엔(UN)의 승인을 받아 터키의 국호가 ‘튀르키예(Türkiye)’로 변경했다는 뉴스가 온 아침이었다. ‘터키(turkey)’가 영어로 칠면조 말고 겁쟁이 부적인 뜻도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정부가 국호 변경 캠페인을 진행해 왔죠. 그렇게 어제는 터키를, 오늘은 튀르키예를 여행하는 중이다. 문득 아직 입에 붙지 않은, 막 그 이름들만 낯선 땅을 밟고 싶어졌다. 아주 낯설고 낯선 나머지 나를 제외한 모든 공기가 다 바깥에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땅으로, 이제 여행 첫날 나를 태운 택시가 왜 하필 이스탄불의 발랏(Balat) 지구로 향했는지에 대한 답이다.

색깔로 여행자를 유혹하는 여행지는 많다. 모스크와 이탈리아 부라노섬, 그리스 산토리니도 그렇고, 산란의 퍼즐집도 있었지, 그런데 여긴 그보다 좀 거칠다. 날갯과 날은 것이 모인 곳, 날갯이 날아지고, 날아져서 날갯이 된 곳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어딘가 빈틈 많아 보이는 달동네. 이태원 해방촌에 색이 칠해지던 어떤 느낌이라나. 정제되지 않은 발랏의 분위기는 이유가 있다. 1894년, 이스탄불을 강타한 대지진은 발랏의 생명줄도 끊어 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마을을 떠났고 남겨진 자리엔 빈민촌이 형성됐다. 으스스한 골목길에 선 마당이 붙음으로 사고 팔렸다. 간당간당 숨이 끊어지던 마을에 다시 택마이 튀기 시와한 건 유네스코와 유럽연합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덕분이었다. 예슬로 지역을 살리자는 목표하에 땅 빈 건물과 거리엔 마약 얻기 대신 색색의 벽화가 파어올랐다. 지금도 이스탄불의 예슬가들은 도심부의 비싼 월세를 피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발랏에 와서 작품 활동을 펼친다.

발랏은 요즘 현지인들도 인정하는 이스탄불에서 가장 핫한 동네다. 프로젝트의 성과는 최근 10여 년 동안 발랏의 집값이 오르고 카페와 공방이 늘어났던 파도 예측할 수 있다. 예슬가들의 손에서 탄생한 일명 ‘우산 카페’는 어마어마한 SNS 명소가 됐다.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는 관광객들의 줄이 마치 기다란 헬관처럼 보인다. 뜨겁고 울컥하는 활력이 마을 구석구석을 타고 흐르는 중이다.

이스탄불이 일곱 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지만, 발랏엔 특히 파곤 언덕이 많다. 평평 오르다 보면 군데군데 갈비뼈가 드러난 건물들이 보인다. 찢어 벗겨진 오래된 집들도, 재생 사업이 진행됐어도 여전히 그렇다. 옛 건물의 모습을 보존하되 현대 예슬을 조합시키고자 하는 재생 사업의 취지 덕분이다. 새로워졌으나, 변함없이 널고 날(갯) 것들을 위한 동네, 진정한 재생(再生)이란 그런 것이다.



신생 축제, 두 도시를 휩쓸다

만약 어느 도시를 여행하다 똑같은 포스터를 곳곳에서 자주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뭔가 대단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이스탄불에선 분명 그랬다. 거리마다 필러이는 축제 포스터가 '컬처 루트 페스티벌(Culture Route Festival)'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름이 좀 생소한데, 이래 봐도 지난해에 무려 700만명 이상이 방문한 튀르키예 최대의 문화 예술 축제다. 튀르키예 문화관광부가 자국의 도시 문화유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결과다. 올해 2회를 맞이한, 아직은 '신생' 축제지만 원래 애들은 한 해가 다르게 쑥쑥크지 않나, 무섭게 성장 중이다.

이스탄불과 수도 앙카라 두 곳에서 열린 이번 축제엔 무려 6,000명 이상의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전시, 오페라, 콘서트, 공연, 워크숍 등 진행될 행사만 해도 2,000개가 넘는다. 전시 콘셉트도 색깔이 짙다. 1850년에서 1950년 사이 튀르키예에 거주했던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부터 오스만 제국의 화려한 전성기를 재현한 오페라, 청소년 예술가들의 거리 전시, AI 기반의 디지털 전시까지. 하여튼 예술과 관련 해선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예술 애호가들이라면(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시간이 훌쩍 달는 아찔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스탄불의 컬처 루트는 '베이올루 컬처 루트(Beyoğlu Culture Route)'라고도 불린다. 아타튀르크 문화 센터에서 이스티클랄 거리를 지나 칼리터 포트까지 4.1km의 루트가 베이올루 지구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튀르키예 문화관광부가 최근 몇 년간 복원한 수많은 역사, 문화적 건축물들을 꼭 훑을 수 있는 루트이기도 하다. 이중 메인 스폿을 꼽으려면 역시 아타튀르크 문화 센터(Atatürk Cultural Center)다. 리모델링을 거쳐 작년 10월에 문을 연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아트 센터로, 튀르키예 국립 예술 기관들의 중심 역할을 한다. 이 밖에 아틀라스 극장과 시네마 박물관, 전통 군무 세마(Sema) 공연을 볼 수 있는 갈라타 메블레비 뭇지 등도 모두 이 루트에 포함돼 있다.

루트는 신시가지지를 관통한다. 그러니까, 아야 소피아 성당이나 블루 모스크니 하는 메이저급 관광 명소들이 집합해 있는 구시가지가 아니라 얘긴데, 이런 위치 선정엔 지금껏 비교적 주목을 덜 받은 신시가지로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도 함축돼 있다. 균형 잡힌 도시의 부흥, 그건 축제의 또 다른 목표 중 하나였다.

신시가지에서 열리는 '신생' 축제, 혁신적인 작품을 안고 앓다부어 데 뷔전을 치르는 '신진' 작가들, 예술을 발 구름판 삼아 '도약'을 꿈꾸는 지역들, 모든 것이 거듭 새로워지고 있는 이 도시에서 670여 년의 역사를 품은 갈라타 타워(Galata Tower)는 유독 묵직한 존재감을 발 한다. 전망대에 오르면 보스포러스 해협이 한눈에 담긴다. 조각조각 내려 둔 뒤, 마음이 허전할 때마다 꺼내어 들여 보고 싶은 풍경이다.

이스탄불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국토가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 있는 도시다. 동양과 서양,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오랜 세월 이 땅에서 뒤엉키며 튀르키예만의 문화를 꽃피워 냈다. 이렇게 여러 문화와 물자가 섞이는 도시에서 자란 이들의 몸엔 예술가의 피가 흐를

수밖에 없었겠구나. 대립과 융합, 와해와 공존, 이 모든 것들이 예술적 영감의 싹이 되어 발아해 왔을 터였다. 동서양이 교차하는 하늘 위에서 나는 '어째서 이 땅엔 이렇게 위대한 예술이 넘쳐나는가?'란 물음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들었다.



1 갈라타 타워에 걸린 이스탄불의 거리 2 신시가지의 골목 시장 3 축제 포스터가 보인다. 여기 저기는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4 이스탄불의 이스탄불이 한 눈에 보인다





1) (가운데) 랜드마크가 앞집에 있는 구시가지 2) 블루 모스크 내외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진다 3) 퐁퐁과 코넬도 구시가지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다 4) 아이 소피아 성당 내부, 방 냄새 주의

신세계에서 구세계로

이stanbul은 뜨겁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여름 콘테스트'를 하면 아마 Istanbul의 여름이 못해도 3등은 할 거다. 이런 날씨엔 드리클로 (땀 억제제)만이 살길이다. 탁살이 발발발발 떨어 정도로 올링이는 버스에 올랐다. 에어컨 하나 없는 차내, 체감 온도는 40도, 내리찍는 태양과 타들어 가는 피부, 저 멀리 빛나는 돐이 보인다. 구시가지에 닿았다.

우린 여행을 할 때 가장 여행을 잊는다. 걷고 먹고 자다 보면 낯설었던 현실에 대한 감흥도 빠르게 상실되곤 한다. 실감이란 게 그렇게 무력하다. 그럴 때 그 익숙함을 차차히 깨부수는 건 랜드마크들이다. 랜드마크가 지닌 힘이란 생각보다 강렬해서, 주변을 서성이지만 해도 그 도시에 왔다는 사실이 몸 전체에 파동처럼 전해진다. Istanbul의 리얼리티는 아이 소피아 성당에 있다. 말하자면 이런 거다. 보자마자 '와, Istanbul이군' 하는 감탄사가 나오는 곳. Istanbul이 그곳에 있었다. 신시가지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신시가지가 '예술 신세계'라면 구시가지는 '역사 구세계'. 그것도 먼지가 아주 보얗게 쌓인 어느 오래된 세계의 일부 같았다. 뉴(New)에서 올드(Old)로 옮겨지는 이 순간이 새삼스럽다.

아이 소피아 성당은 그 자체로 Istanbul의 역사가 적힌 거대한 역사서다. 변천사가 꽤 굴곡진데, 로마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2세 때 그리스도교 대성당이었다. 이곳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 때 이슬람 사원이 됐다. 이후 1935년에 박물관으로 개조됐다가 2020년, 에르도안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다시 이슬람 사원으로 전환됐다. 이젠 새벽 4시에도 기도하러 오는 무슬림들로 성당 일대가 북적인다. 입장료는

무료가 됐다. 성당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선물을 벗어야 한다. 이쯤에서 다시, Istanbul은 뜨겁다. 뜨거우면 땀이 나고, 땀이 나면 뉘, 아무래도 체취가 강해지기 마련이다. 무슨 말이나면, 밀폐된 공간에서 수백 명의 발가락 냄새를 한번에 맡을 수 있는 랜드마크란 전 세계에 그리 흔치 않을 거란 얘기다. 성스러운 공간에 외람된 표현이긴 하지만, 여름에 아이 소피아 성당을 방문한다면 간장이나 된장 따위에 땀기가 꼭 쏠여지고 있는 듯한 엄청난 냄새를 맡을 수 있다(땀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이런 날씨엔 역시 드리클로만이 살길이다.

냄새의 장벽만 넘으면 이후엔 천국이 보장된다. '비잔틴 미술의 최고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는 만큼 성당은 건축학적으로 무척 아름답다. 높은 층고의 실내엔 그리스도교의 흔적과 이슬람 건축 양식이 혼재돼 있다. 복잡다단했던 역사적 배경 탓이다.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모자이크 곁에 놓인 이슬람식 장식과 타일들, 그리고 코볼코볼 직힌 코란의 금문자. 한때는 따로 흠뻑을 그리스도교의 시간과 이슬람교의 시간이 그렇게 공존하고 있었다. 그건 그 자체로 튀르키예의 역사였다.

성당을 나오니 목격한 처음의 올림이 스피커를 통해 퍼진다.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올린다. 새벽, 낮, 오후, 일몰 직후 그리고 야간. 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목소리가 곧 시적인 셈이다. 그들의 네 번째 기도가 시작되고 있었다. 맞은편엔 푸듯한 잔디 너머로 '블루 모스크'로 불리는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의 돐이 노을빛을 받아 빛났다. 끝없는 올림과 끝없는 기도, 끝없는 이야기. 그건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해온 것들이기도 했다.



★ ANKARA



1.3 아노트카비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로마 복원한 유적지 2 유치원생부터 대학 졸업생까지 앙카라 학생들의 필수 코스, 아노트카비르 4 아타튀르크 대통령 묘향 건물과 불우가 그의 얼굴에서 드러난다

튀르키예인의 얼이 잠든 곳

튀르키예의 문화를 엿보고자 할 때 아노트카비르(Anıtkabir)를 지나친다는 건 앙카라에서 할 수 있는 최고로 우둔한 것이다. 튀르키예인들의 얼이랄까, 정신 같은 것이 집약돼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기엔 그가 잠들어 있다. 그가 누군지 밝히기 전, 그의 인기부터 실감해 보자.

우선 튀르키예를 여행하면서 그의 얼굴을 마주치지 않기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 정도로 길거리나 식당, 관공서, 학교 할 것 없이 어디든 그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다. 도시 중심가엔 늘 그의 동상이 서 있다. 심지어 모든 튀르키예 화폐 앞면에도 그의 얼굴이 있다. 그의 이름을 못 들어 보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다. 도시에서 가장 큰 대로엔 어김없이 그의 이름이 붙고, 이스탄불 제1공항이었던 공항의 이름에도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전 국민의 전폭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는 현대 튀르키예의 국부, 그의 정체는 튀르키예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다.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아타튀르크 대통령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세종대왕+이순신 장군+백범 김구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잡한 아랍 문자 대신 새 문자를 도입해 문자 개혁을 이뤄 냈고, 칼리폴리 전투* 등에서 외세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 내셨죠. 오스만 제국의

패배 이후엔 조국을 지키기 위해 독립전쟁을 주도하셨고요. 지금의 튀르키예를 있게 해준 민족 영웅이세요." 98%의 팩트와 2%의 사심이 섞인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다. 그의 업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강력한 정교분리, 세속주의 정책을 펼치며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여성교육과 근대교육에도 힘썼다. 그 영향으로 튀르키예는 지금까지도 이슬람권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히잡 착용은 개인의 선택, 음주도 물론 가능하다. 아노트카비르는 그런 그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튀르키예에 방문하는 귀빈들은 반드시 한 번씩 이곳을 거친다. 유치원 소풍, 대학교 졸업식, 가족 나들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튀르키예인들도 이곳을 거친다. 그의 얼굴이 새겨진 기념품은 이른 오후면 전부 동이 난다(연예인 굿즈 뽐치는 인기다). 아타튀르크 대통령을 향한 튀르키예인들의 감정은 거의 무조건적인 존경과 경외에 가깝다. 그는 튀르키예인의 아버지이자 튀르키예의 얼이고, 정신이고, 문화다. 그래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이 말을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다. 튀르키예의 문화를 엿보고자 할 때 아노트카비르를 지나친다는 건 앙카라에서 할 수 있는 최고로 우둔한 것이다.

*1차 세계 대전 당시 연합군이 독일과 동맹을 맺고 있던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기 위해 갈리폴리 반도에 상륙해 벌인 전투.